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권능

육적인 것보다 우선되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9:1)

여기서 본 동네란 예수님의 사역 중심지인 가버나움을 가리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9:2)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친구들은 아마 예수님의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신 말씀에 매우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먼저 ‘내가 너를 고치노니 일어나 집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은 실망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께서는 그에게 무엇보다도 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병고침받는 것보다 죄 사함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기적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일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기적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에게 위대한 기적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지 하며 불평합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저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하고 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당연한 표정으로 대답한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최대의 기적적인 선물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기적이라도 이 구원과 가치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제보다 육적이며 물질적인 문제들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실수들을 얼마나 자주 저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교훈은 육적인 것보다 우선되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람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9:3-4)

예수님이 당신의 생각을 아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분은 당신의 생각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어느 쪽으로 말하는 것이 더 쉽겠는가만을 따진다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더 쉬울 것입니다. 이 말은 눈으로 보이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는데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하신 그 즉시 말씀에 따른 능력이 나타나지 나타나지 않는지를 즉시 알 수 있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더 부담없이 하기 쉬운 말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진정한 이유는 그분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사람들로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여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침으로써 죄 사함의 권세가 있으심을 사람들 앞에서 확실히 증거하려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에 대하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인 증거를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말씀에 따라 병자가 일어나 침상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격한 무리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태복음 5:16을 기억하십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 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좃으라 하시니 일어나 좃으니라”(9:9)

마태는 세관에서 일종의 통행세를 받던 세관원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는 북부 갈릴리 지방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골란 지역과 갈릴리 호수 지역으로 반입하는 물품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세운 세관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9:10-11)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자리를 함께했다는 표현을 보니 마태는 아마 자기 집을 모든 이에게 공개하여 잔치를 벌인 듯합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권에서는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적 신앙에 따르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그 둘은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빵 한 덩어리를 조금씩 서로 떼어 먹게 되면 그 빵은 각각의 몸 속에서 동화를 일으켜 각각의 몸의 일부가 되는데 그 빵은 원래 하나였으므로 그 빵을 함께 먹은 사람은 신비한 방법으로 결국 하나가 된다는 사고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을 기초로 자신이 동화되고 싶지 않은 상대방과는 결코 음식을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잡수신 뜻은 무엇입니까? 죄인들과 하나가 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죄인들과 동일하게 여겨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과 하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즉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그들과 하나되어 동일하게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9:12)

이 말씀에 이어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6:6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는 원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는 감사 드리기 위해서 드려졌으나 호세아 당시에는 형식화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의무를 지키는 것보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9:14-15)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날이 오리라는 예고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개혁의 무가치성을 말씀하십니다.

“생베 조각을 낚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낚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9:16-17)

당시에는 요즈음과 같이 빨아도 줄지 않도록 미리 줄어든 상태로 만들어서 나오는 옷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기우려면 현 옷은 현 천을 사용하여 기워야 했는데 만일 그렇지 않고 현 옷에 새 옷감을 사용해서 기우면 빨았을 때 새 옷감이 줄어들면서 주변의 현 옷감들을 잡아당겨 헤진 것이 더 넓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또 새 술을 가죽이 낡고 단단하게 굳어진 현 부대에 넣으면 그 새 술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단단하게 굳어진 가죽부대에 균열을 가져와 부대가 터지게 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만 술이 발효되는 정도와 가죽이 굳어져 가는 과정이 서로 보조를 맞추어 둘 다 안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확립되어 있던 종교 체제를 거부하시는 내용이며 동시에 개혁할 수도 없음을 역설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를 개혁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베 조각을 낚은 옷에 대고 기우려는 것과 같이 소용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는 이미 조직화되고 화석처럼 굳어버린 옛 종교 체제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사람들을 쓰시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역사도 증명합니다. 전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어떤 교단이나 종파가 진정한 내부적 개혁을 일으켜 재건되었던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대개 위대한 부흥은 완전히 새로운 교단이나 교파가 생김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새 술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새 부대도 예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너무도 단단하게 굳어져서 새 술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계획하는 일을 위해서 새 가죽부대를 오래 전부터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새 포도주를 낚은 가죽부대에 넣으려고 애쓰는 헛수고를 되풀합니다. 그것은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지 못합니까?

치유받은 믿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9:18)

이 직원은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엄청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 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겹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겹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9:19- 22)

이 사건에서 지적하고 싶은 중요한 부분은 이 여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나타내 보일 접촉점을 확고하게 세워놓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일으켜 역사하도록 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믿음을 일으켜 역사하도록 하는 일은 가치가 있으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요’라고 말하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거나 ‘하나님께서 이제 곧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믿는 것이며 동시에 그 믿음을 일으켜 역사하도록 하는 데까지 이르는 과정입니다.

혈루증을 앓는 이 여자는 마음속으로 그녀의 믿음에 대한 이러한 과정에 꼭 필요한 접촉점을 굳게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의 접촉점은 다름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겹옷만 만져도 그 즉시로 반드시 내 병이 낫겠다’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의 옷 가를 만짐으로써 병고침에 대한 그녀의 믿음이 구체적인 사실로 변하리라 믿고 있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자 자기의 믿음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장로들을 청하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손을 얹게 하는 행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5:14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을 몸에 얹는 행위는 참으로 엄청난 믿음을 일으키는 접촉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장로님이 제 몸에 손을 얹고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제 병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 가를 만진 사실을 아시고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부는 자들과 환화하는 무리를 보시고”(9: 23)

당시 이스라엘이나 특히 이교도 국가에서는 사람이 죽거나 심하게 아프면 사람들을 고용하여 그 집에서 큰 소리로 곡하거나 피리를 불게 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악한 영들을 멀리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병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병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9:24-38)

소녀를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은 따라오는 소경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면서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 병어리 된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어떤 고정된 형태에 매이지 않고 다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에 대해 고정된 형태와 시각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제한된 생각 속에 가둬놓습니까?

습관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나름대로의 테두리를 치며 그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주장하거나 당연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규격화된 접근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즉 규격화된 하나님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문제를 이야기하면 곧 자신이 그 해결방안을 골라서 이 방법 저 방법 등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틀에 맞추어지기 시작합니다. 통에 담겨지고 통에 번호가 매겨지기 시작합니다. 유형이 연구되고 통계가 잡혀나갑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쩌다가 한두 가지 사례가 공식화된 하나님의 사역 유형에 맞아 떨어지는 것 같으면 그 유형은 하나의 비방이 되어 버립니다. 열심히 그 유형을 추구해 나가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능력에 기인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정된 형식을 거부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그녀의 믿음으로, 그리고 소경들도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보고 ‘예수님은 각 사람의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유형을 공식처럼 만들어 냅니다. 그러나 직원의 딸을 고치셨을 때 예수님은 그 소녀의 믿음을 보고 고치셨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치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다양한 필요에 따라 적절한 형태로 치유하셨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그 유형을 연구하여 비방을 손에 넣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 욕심에서 비롯된 그릇된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의 개성과 필요에 따라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각 사람의 개성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에 대해서 이렇게 개별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규격화된 유형에 맞추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으니 당신에게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의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당신대로 따로 교단을 만들고 나는 나대로 교단을 만듭시다.’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만 하나님을 규정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은 예수님이 한 촌에 들어가셨을 때 문둥병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소리를 높여 공황히 여겨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때 예수님은 손을 대시지 않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의 8:2에서는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 고침받은 문둥병자들이 서로 만났다고 합시다.

“당신은 예수께서 어떻게 치료받았소?”

“그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해서 가는데 깨끗해졌소”.

“그래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단 말이요. 거 참 이상하네.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 교단에 속할 수 없소. 우리 교단 은 ‘손 대신 교단’이란 말이요”.

“네? 그럼 우리 교단은 ‘손 안대고 낫는 교단’이요”.

쉽게 예를 들어본 것이지만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기독교는 우리들이 서로 다른 만큼이나 다양함이 허용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각각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정한 형식으로 묶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겪었던 똑같은 경험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하고 독특한 형태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과 이러한 개인적인 교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방법들은 그 다양성에 있어 무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 속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 드립니다.